

취업 힘들어 학생 신분 유지 대학생 10명중 3명 ‘졸업유예’

대학별 비용 차이 등 부작용 우려
졸업까지 평균 시간 5.4년 걸려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는 20.4%

오는 2월 대학 졸업 대상자 10명 중 약 3명이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렵자 대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취업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지않은 대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만큼 대학마다 규정이 다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유예제 운영현황 전수 조사 자료(2017년 2월 기준)’에 따르면, 197개 대학 중 130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생은 1만5898명, 이들이 낸 등록금은 33억7천만원에 이른다.

졸업 유예는 이수 학점 등 대학의 졸업 요건을 다 채워 졸업이 가능하지만, 졸업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도

대학생 졸업까지 5.4년 걸린다



록 하는 제도로 대학별 자율로 운영되다 보니 등록비용의 차이가 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별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기준이 제각기 달라 대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학별로 최소 수강학점 기준을 두고 수십만원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나 등록금 없이 이름뿐인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 등 형평성 등 논란이 제기된다.

대학별 졸업유예제도를 보면, 서강대는 최소 수강학점이 1학점 이상이고, 졸업유예를 하려면 69만3600원을 내야 하지만, 같은 최소 수강학점을 적용하는 서울과기대와 명지대의 등록 비용은 각각 11만8270원과 56만2천원이 든다. 또 단국대는 최소수강학점이 없지만, 18만6500원을 내야 졸업 연기가 가능하고 동국대는 제도를 시행하지만 최소 수강학점이나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2월 졸업 대상자 58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72.4%(422명)만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27.6%는 졸업 유예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자는 20.4%에 그쳤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4년이 걸렸다. 성별로 여자 대학생의 경우 평균 4.8년 인 반면, 남자 대학생은 평균 6.2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4년 길었다.

대학생들은 특히 앞으로 졸업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졸업시기가 늦춰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43.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은 34.5%, ‘잘 모르겠다’는 22.1%로 집계됐다.

졸업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복수응답)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라는 답변이 66.8%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취업을 위해 쌓아야 할 직무역량 경험 등이 많아져서(53.0%)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등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12.6%) 등이 있었다.

반면, 졸업시기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에는(복수응답),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65.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졸업유예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45.8%) 등의 답변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 고용시장 ‘고령화’ 본격화

20대 50대 고용률 격차 ‘17.6%’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고용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인이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2017년 연간고용동향 발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20대와 50대 고용률 격차가 17.6%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세대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는 2016년 고용률 58.3%에서 2017년 57.8%로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50대 고용률은 2016년 74.4%에서 지난해 75.4%로 1%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고용률이 79.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75.4%), ‘30대’(75.3%), ‘20대’(57.8%), ‘60대이상’(39.9%) 등의 순이었다.

2017년 12월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50대(50-59세)는 75.5%로, 자녀 세대인 20대(20-29세) 고용률

57.1%보다 18.4%포인트 높았다. 전년 동월(2016년 12월)과 비교해도 ‘50대’와 ‘30대’는 고용률이 각각 1%포인트, 0.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0.8%포인트 감소해 청년층 인구수 감소 및 심화되는 구직난에 따른 고용 절벽이 뚜렷하게 보이는 추세였다.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이 71%로 여성 50.7%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남성의 경우 ‘40대’(92.1%), ‘30대’

(90.4%), ‘50대’(87.8%), ‘20대’(55.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인 20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50대 부모 세대와의 격차가 31.9%포인트 컸다.

여성 고용률 역시 ‘40대’가 66.3%로 가장 높았다. ‘50대’(64.2%), ‘20대’(63.6%)가 그 뒤를 이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62.3%로 가장 낮아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용수 기자



미세먼지 비상조치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 전 광관에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건국대-KU융합과학기술원 미생물 속 효소 이용 ‘당뇨병 치료제’ 찾아

건국대학교는 KU융합과학기술원 오덕근 교수 연구팀이 미생물에 존재하는 효소를 이용해 인체 내 존재하는 지질 조절제와 유사한 물질들을 개발해 당뇨병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1월 9일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부작용이 적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천연 물질의 발굴에 주목했고 일부 미생물로부터 인간 유래 지질조절제인 헵톡실린, 트리오실린 등의 물질들을 합성해냈다.

지질 조절제란 면역 항염증 포도당대사조절 지방대사조절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헵톡실린은 인슐린 분비촉진, 칼슘의 수송 등의 생리활성을 돕는 물질이다. 트리오실린은 헵톡실린이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전환되는 3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물질이다.

오덕근 교수는 “향후 당뇨병 치료, 염증치료, 감염치료 등의 기능이 있는 다양한 지질 조절제를 생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지역 전문대 정시 경쟁률 ‘10.9대1’

서울지역 9개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10.9대 1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10.4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17일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서울권 전문대 중 삼육보건대 경쟁률이 19.7대 1로 가장 높았다. 동양미래대 경쟁률은 7.1대 1로 가장 낮았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명지전문대 13.1대 1, 인덕대 11.6대 1, 배화여대 10.9대 1, 서일대 10.7대 1, 한양여대 9.9대 1, 송의여대 8.7대 1 등으로 마감됐다.

서울여자간호대가 전년 12.6대 1에서 올해 16.7대 1로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상

승률을 기록했다.

취업난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에서 유리한 전문대 지원자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취업에 유리한 간호, 보건, 유아교육, 식품영양 등 실용적인 분야 경쟁률이 높았다. 또 미디어산업 성장에 따라 방송, 연기, 실용음악 분야 지원자도 지속 늘고 있다.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가장 높다.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가창전공)는 무려 135대 1을 기록했고, 한양여대 실용음악과(가창전공)도 10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권 전문대 경쟁률〉

학교명	2017년	2018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2.6	16.7
인덕대학교	9.4	11.6
서일대학교	9.1	10.7
삼육보건대학교	18.7	19.7
한양여자대학교	8.9	9.9
배화여자대학교	10.3	10.9
송의여자대학교	8.9	8.7
동양미래대학교	7.8	7.1
명지전문대학	14.9	13.1
소계	10.4	10.9

이밖에 방송연예과, 연극영화학과, 연극영상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등도 평균 경쟁률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용수 기자